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은정 · 정명선^{*†}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Sociocultural Influences of Appearance and Body Image on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Eun-jeong Park · Myung-sun Ch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2년 3월 19일), 수정일(2012년 5월 8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influences and body image on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s (facial management, clothing selection, and weight/figure management). For data collection, a questionnaire was administrated to 562 female college students in Gwangju City, Chonnam area and Chonbuk area, Korea, from May 23 to June 10, 2011. To analyze the data, a SPSS 18.0 statistics package was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ocultural influences were divided into three factors: parental influence, media influence, and peer influence. Overall sociocultural influences had positive effects on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Second, body image was divided into two factors: weight-concern and appearance-concern. Sociocultural influenc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overall body image. Third, body image appear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overall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Key words: Sociocultural influences of appearance, Body image,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이미지, 외모향상추구행동

I. 서 론

사람들이 처음 만나 그들 간 실제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의복을 위시한 외모에 의해 제공되는 상징적 단서들이 상호작용을 위한 발판이 되고, 그들은 서로의 외모 속에서 보여 지는 것에 근거하여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물론,

처음 만난 사람의 외모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의 외모가 상품의 포장에 비유될 정도로 첫 인상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Fallon(1990)은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문화적 맥락 속에 뿌리를 두고, 매력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신체적 특성들 역시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집단의 동의를 통해 타당성을

[†]Corresponding author

E-mail: mschung@chonnam.ac.kr

갖는다고 하였다. Kaiser(1993)는 문화를 개인이 외모를 관리하고, 지각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맥락으로 보았고, 외모에 대한 문화적 전망이 상징성을 지닌 외모들을 신념과 가치가 공유되는 더 큰 맥락 속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아름다운 얼굴과 날씬한 체형을 성취하기 위한 외모관리에 많은 돈과 노력 및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증가와 성업,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과 약품의 개발과 판매 및 뉴스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의 성형설 등이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TV, 잡지 등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비교의 기준이 되어 여성들의 신체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신체불만을 초래하여 자신들의 외모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rice(1986)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대중매체만이 아니라 유전, 사회화, 유행, 동료집단, 문화, 인종 등이라는 것을 주시하였으며, Rozin and Fallon(1988)은 특히 부모가 자신들의 신체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태도가 자녀들이 자신들의 신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Paxton et al.(1999)은 친구 등의 주변요인이 신체이미지와 외모 관련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Stice(1994)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가족, 친구, 미디어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이 세 가지 사회문화적 영향요인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서로 결합하여 날씬함과 아름다움이 여성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Kim and Lennon(2007) 역시 여성들의 신체이미지는 가족 구성원, 동료, 동급생 및 미디어 이미지와의 비교와 평가를 통하여 발달하며, 날씬함과 매력성을 여성의 바람직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여성들의 외모 관련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미의식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는 물론 친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체이미지를 왜곡하게 하고,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신의 외모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이조절, 화장, 피부관리, 의복선

택 등의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국내 외모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 등이 신체이미지, 신체불만족 혹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져왔고, 주로 외모 관련 행동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따라서 부모, 친구, 미디어를 포함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이미지, 신체불만족 및 외모향상추구 행동과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부모, 친구, 미디어), 신체이미지, 신체불만족 및 외모향상추구행동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구명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영향력 및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우리가 타인들과 상호작용할 때 말이나 행동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행동, 감정 혹은 태도가 변화될 때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Baron & Byrne, 1977).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사회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외모 관련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Stice et al.(as cited in Morrison et al., 2004)은 미디어라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외모관리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고, 날씬한 것이 좋다는 사회문화적 가정들을 가장 강하게 전달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미디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otta(1999) 역시 소녀들이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마른 몸매를 가진 연예인과 자주 비교할수록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Yamamiya et al.(2005)도 여대생들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미디어 이미지에 5분 정도의 노출만으로도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chwartz et al.(1999)은 개인의 부정적인 신

체이미지가 부모와 함께 시작된다고 밝히고, 부모와 자녀의 신체이미지 형성 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Ricciardelli et al.(2003) 역시 부모가 체중 혹은 체형에 관심이 많거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는 경우, 그 자녀는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힘으로써 외모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Stormer and Thompson(1996)은 외모에 대한 친구의 놀림이 여대생들에게 형성되는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섭식장애의 상당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Jones et al.(2004)도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외모에 대한 친구로부터의 비판이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으로써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친구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한편, Stice(1994)는 신체이미지와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문화적 메시지 전달매체들이 가족, 친구 및 미디어라는 것을 주시하였으며, Thompson and Heinberg(1999)은 친구, 부모, 미디어라는 세 요인으로 구성된 삼자영향척도를 개발하여 이 요인들이 각각 외모비교와 마른 이상미의 내면화를 매개하여 청소년기 여성들의 신체이미지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척도는 Keery et al.(2004)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Park(2006)은 이 개정판 삼자영향척도(Tripartite Influence Model-Revised)를 이용하여 여고생들과 여대생들이 체중과 체형을 자신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신체에 대한 친구 혹은 부모의 부정적인 조언이나 염려 및 미디어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요인들과 체중 관련 다이어트나 섭식장애 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라는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는 것(Gergen, 1971), 우리 신체를 감싸고 있는 정신적인 상(picture)에 대한 감정적 반응(Fisher, 1986), 자아(self)의 반영으로 경험된 것으로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hold)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Fallon, 1990), 혹은 어느 주어진 순간 한 개인이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지적인 영상(Kaiser, 1990)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은 신체이미지를 주관적인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아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Garner and Garfinkle(as cited in Stuhldreher & Ryan, 1999)은 신체이미지를 자

아 지각적 요소(우리가 보는 것 혹은 사이즈, 형태, 체중, 특성들, 동작 및 수행에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와 태도적 및 감정적 요소(그 속성들에 관해 우리가 느끼는 방법과 우리의 감정이 특정한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방법)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Rudd and Lennon(2000)은 신체이미지를 신체에 대한 지각적 요소들(신체사이즈, 형태, 체중, 신체특성, 운동성 및 기능)과 태도적 요소들(우리가 이 속성들에 관해 느끼는 방법 및 우리의 행동에 대한 감정)을 내포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한편, Gergen(1971)은 개인의 신체이미지는 그가 속한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Cash(1990)도 신체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지각대상으로서의 개인의 신체이미지와 태도는 개인의 '정신상태변인들(state variables)'에 따라 변화하고, 의복, 화장 및 액세서리를 이용한 인상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Cash(1992) 역시 개인의 신체이미지는 그 시대의 미의 기준과 유행 등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Lee(2008)는 신체나 외모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신체이미지는 그 사회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Kim et al.(1999)은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인 여대생 집단이 체중조절에 관심이 높고 다이어트 행동을 많이 한다고 밝혔으며, Song(1999)은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 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Chung and Lee(2007)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여대생 집단이 의복의 심미성을 더 중시하고, 연예인을 더 많이 모방하고, 명품을 더 선호하며 신체적 외모 향상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혔다. Song(2009)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인식하게 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과 헤어스타일 연출 같은 소극적인 외모관리는 물론,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3. 외모향상추구행동

Kaiser(1990)는 외모라는 개념이 다이어트 실행, 헤어스타일링, 화장품 사용, 문신 및 피어싱 등을 포함한 신체변형과 관련된 과정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복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Lennon and Rudd(1994)는 여성들이 외모개선제품들을 이용하여 문화적 심미적 이상에 근접하도록 외모를 적극적으로 창조하며, 창조된 외모는 타인들(예컨대, 또래, 부모, 의미 있는 타인들)에 의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차례로 지각된 평가가 그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oh and Lee(2004)는 사춘기 여성들이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신체이미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체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복이 부여하는 혜택을 추구하고 다이어트와 같은 외모관리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Bittner(1996)는 변형 및 조작을 통해 자연상태의 외모를 개선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외모향상추구행동으로 정의하고, 교수의 외모향상추구행동이 그의 매력성을 증가시켜 남녀 대학생들에게 지적이고 친밀한 느낌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Lee and Koh(2006)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체중조절이나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외모향상추구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외모향상추구행동의 동기가 되는 요인들로 아름다움의 성취, 자신감의 향상, 동조를 통한 인정의 욕구, 과식욕구, 이성의 호감획득, 원하는 의복착용 및 취업을 위한 외모요건 등을 들었다. Cho and Choi(2007)는 외모향상추구행동을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해지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외모향상추구행동은 화장,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의 순이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외모향상추구행동은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 화장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결과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를 더 매력적인 것으로 향상시켜 보이게 하기 위해 외모관리를 행해오고 있다는 것과 외모향상추구행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하에 있다는 것 및 지각된 신체 이미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본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개인의 신체이미지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부모, 친구 및 미디어의 영향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Keery et al.(2004)의 개정판 삼자영향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43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결과 외모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요인과 어머니의 영향요인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부모에 관한 문항으로 통합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외시킨 총 20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2) 신체이미지

본 연구에서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전반적인 외모와 체중에 대한 관심 및 개선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ash(1990)의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s)의 하위척도인 외모평가, 외모지향, 체중관심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 중 12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과 신뢰도가 낮은 4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3) 외모향상추구행동

본 연구에서 외모향상추구행동은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얼굴관리, 체중/체형관리 및 의복선택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Park and Chung(2010), Jeon(2010)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만든 총 34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 조사의 연구대상과 유사한 조건의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에 걸

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여대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65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통계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6세로 1학년이 169명 (25.9%), 2학년이 162명(24.8%), 3학년이 167명(25.6%), 4학년이 154명(23.6%)으로 파악되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215명(33.0%), 자연과학계열 225명(34.5%), 예체능계열 212명(32.5%)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장의 직업은 전문기술직이 155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123명(18.9%), 판매서비스직이 109명(16.7%), 전문직이 86명(13.2%)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195명(2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300만원 미만이 153명(23.5%), 400~500만원 미만이 115명(17.6%), 500~600만원 미만이 88명(12.5%)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은 10만원 미만이 292명(4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만원 미만이 230명(35.6%), 20만원 이상이 130명(19.9%)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논의

1. 외모향상추구행동 실태

여대생들의 외모향상추구행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외모향상추구행동은 크게 얼굴관리, 체중/체형관리 및 의복선택행동이라는 세 범주로 분류되었다.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외모향상추구행동은 얼굴관리($M=3.50$, $SD=.50$)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의복선택($M=3.44$, $SD=.50$), 체중/체형관리($M=2.90$, $SD=.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얼’이나 ‘얼짱’ 같은 얼굴 관련 신조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매력적인 얼굴을 중시하는 사회풍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여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며, 의복, 체중에 비해 피부관리나 메이크업 등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밝힌 Jeon (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원 분류를 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20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문항이 총 변량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13문항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3개의 차원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81, .81, .77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며, 각 요인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설명한 총 변량은 60.52%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변량의 31.04%를 설명하였으며, 여기에는 부모가 자신의 체중이나 외모에 대해 갖는 관심과 부모가 딸의 얼굴, 몸매, 옷 등의 외모에 대해 나타내는 관심을 표현하는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7.36%를 설명하였고, 여기에는 TV나 잡지에서 보여 지는 모델들이나 연예인들이 여대생들의 얼굴, 몸매, 옷 등의 외모에 미치는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미디어의 영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12.12%를 설명하였으며, 이 요인에는 친구들의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친구의 영향”으로 명명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중 부모의 영향이 제1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여 부모가 외모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관계로 자신들의 외모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되거나, 잔존하고 있는 집단주의 사회의 속성으로 인해 부모가 딸의 외모 관련 행동에 개입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여대생의 외모향상추구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38$, $F=108.4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여대생의 외모향상추구행동을 설명한 총 변량은 14.3%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복선택, 얼굴관리, 체중/체형

Table 1. Types and conditions of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Variables	M (SD)
Facial management	Use basic cosmetics (toner and moisturizer)	4.29 (.74)
	Use BB Cream	4.02 (1.03)
	Partial makeup (eyebrow or lip makeup)	3.89 (.97)
	Use eyeliner and shadow	3.74 (1.15)
	Sunscreen when going out	3.67 (1.14)
	Exfoliate the face	3.65 (.94)
	Eyebrow makeup	3.59 (1.13)
	Massage or a facial pack	3.57 (.94)
	Hair drying everyday	3.49 (1.12)
	Use cosmetics (whitening and anti-wrinkle cream)	3.45 (1.10)
	Hair treatment or hair pack	3.35 (1.07)
	Fashionable hair dyes or hair polish	3.33 (1.13)
	Full makeup	3.31 (1.17)
	Sufficient fluid intake	3.27 (.84)
	Trendy hair styling	3.20 (1.02)
	Adequate sleep	3.16 (.86)
	Spend significant time on hair grooming when going out	2.98 (1.03)
	Trendy makeup techniques	2.94 (1.08)
	Total	3.50 (.50)
Clothing selection	Select clothes to cover one's body flaws	3.85 (.80)
	Select clothes to look slim	3.78 (.88)
	Select clothes to show off one's body	3.77 (.77)
	Select accessories to match with clothes (hats, bags, shoes, and accessories)	3.71 (.84)
	Select clothes for fabric texture	3.37 (.92)
	Select clothes for design comfort	3.26 (.91)
	Select fashion accessories	3.16 (.90)
	Select high-heeled shoes and elevator shoes	3.05 (1.18)
	Select trendy clothes	3.00 (.91)
	Total	3.44 (.50)
Weight/figure management	Control of food intake	3.23 (.96)
	Stretching	3.09 (1.10)
	Exercise (yoga, jogging, walking, swimming, badminton, tennis, fitness, aerobics, and hiking)	3.03 (1.11)
	Frequent weight measurements	3.01 (1.13)
	Skip meals	2.98 (1.11)
	Low-calorie food intake	2.77 (1.03)
	Refrain from sweet foods, fried foods, and snacks	2.75 (1.06)
	Total	2.90 (.76)

관리를 설명한 변량은 각각 12.4%, 8.9%,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영향이 여대생들의 외모향상추구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여대생들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of sociocultural influences of appearanc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 α
Factor 1 Parental influence	It is important to my parent (mother or father) to be slim.	0.84	4.04	31.04	0.81
	My parent (mother or father) is worried about his or her weight.	0.74			
	My parental (mother or father) physical appearance (face, shape, and clothing) is important.	0.74			
	My physical appearance (face, shape, and clothing) is important to my parent (mother or father).	0.73			
	My parent (mother or father) wants me to be slim.	0.69			
Factor 2 Media influence	I want to be slim when I watch models/celebrities in TV/magazines.	0.83	2.26	17.36	0.81
	I would like to become prettier when I watch models/celebrities in TV/magazines.	0.80			
	I want to diet when I view models/celebrities in TV/magazines.	0.77			
	I feel the difference in my physical appearance (face, shape, and clothing) when I watch models/celebrities in TV/magazines.	0.73			
Factor 3 Peer influence	My friends think it is important to be thin.	0.85	1.58	12.12	0.77
	My friends think a beautiful face is important to them.	0.82			
	My friends think clothing selection is important.	0.78			
	My friends make an effort concerning their physical appearance (face, shape, and clothing).	0.51			

Table 3. Sociocultural influences of appearance on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s

Dependent variables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s)	Independent variables (Sociocultural influences of appearance)	β	t	F	R^2
Clothing selection	Parental influence	.20	5.09***	30.669***	.124
	Media influence	.13	3.27**		
	Peer influence	.16	4.09***		
Facial management	Parental influence	.14	3.48**	21.185**	.089
	Media influence	.18	4.39***		
	Peer influence	.10	2.36		
Weight/figure management	Parental influence	.21	5.38***	18.339***	.078
	Media influence	.16	3.82***		
	Peer influence	.03	.70		
Total		.38	10.42***	108.4789***	.143

** $p < .01$, *** $p < .001$

이 부모, 미디어 혹은 친구로부터 외모에 대해 직간접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차원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이 차원별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영향은 체중/체형관리($\beta = .21$, $t = 5.38$, $p < .001$), 의복선택($\beta = .20$, $t = 5.09$, $p < .001$), 얼굴관리($\beta =$

.14 $t = 3.48$, $p < .0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의 영향은 얼굴관리($\beta = .18$, $t = 4.39$, $p < .01$), 체중/체형관리($\beta = .16$, $t = 3.82$, $p < .001$), 의복선택($\beta = .13$, $t = 3.27$, $p < .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의 영향은 의복선택차원($\beta = .16$, $t = 4.09$, $p < .001$)에만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16$, $t = 3.82$,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차원별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차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의복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부모의 영향이었고($\beta=.201, t=5.09, p<.001$), 그 다음이 친구의 영향($\beta=.16, t=4.09, p<.001$), 미디어의 영향($\beta=.13, t=3.27, p<.01$)순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의복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대생들의 의복선택에 가장 큰 규범적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이 부모라고 밝힌 Jung(1994)의 연구결과를 일부 뒷받침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의복구매 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부모를 가장 많이 동반하며, 의복구입비를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밝힌 Kim(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얼굴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고($\beta=.18, t=4.39, p<.001$), 그 다음 부모의 영향이었으며($\beta=.14, t=3.48, p<.01$), 친구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얼굴관리에 미친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TV나 잡지에 등장하는 모델이나 연예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여대생들의 얼굴관리행동을 유발시키는 자극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거나 연예인을 모방하기 위한 얼굴관리가 의복선택이나 체중/체형관리에 비해 더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평소 TV나 잡지 등 미디어에 관심이 높을수록 최근 유행화장에 대한 관심과 화장품 구매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던 Choi(1996)의 연구, 여대생들이 잡지 등의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유행하는 화장법이나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헤어관리를 더 많이 하며 헤어스타일 결정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Yun and Jin(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대생의 체중/체형관리에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1, t=5.38, p<.001$), 다음으로 미디어의 영향($\beta=.16, t=3.82, p<.001$)이었고, 친구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영향이 여대생들의 체중/체형관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섭식과 체중 관련 행동에 대한 부모의 관점, 즉 외모나 신체사이즈에 대한 언급이 자녀들의 섭식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Golan and Crow(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자

녀의 외모, 날씬함, 섭식 및 체중에 대한 가족의 놀림과 강조가 섭식장애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Wertheim et al.(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에서 주시되는 것은 외모에 대한 친구의 영향이 의복선택을 제한 여타의 외모향상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이 여대생들의 얼굴관리, 체중/체형관리를 위한 준거집단 혹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의복선택 시 친구들과 동조하더라도 얼굴과 체형/체중에 있어서는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신체이미지의 차원

신체이미지의 차원을 분류하기 위해 신체이미지에 관한 8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의 2개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3, .70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각 요인들이 신체이미지를 설명한 총 변량은 59.99%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변량의 40.2%를 설명하였으며, 이 요인에는 비만과 체중에 대한 관심 및 체중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체중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9.86%를 설명하였고, 여기에는 외모를 돋보이고 싶어 하고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등 외모에 대한 관심 관련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외모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and Song(2009)의 연구에서 신체이미지 요인분석결과와 동일하며, 본 연구 응답자들이 신체이미지 차원들 중 전반적인 외모보다는 체중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신체이미지 즉, 체중관심과 외모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신체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98.46, p<.001$), 외모에 대한 사회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 of body imag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 α
Factor 1 Weight-concern	I always worry about obesity.	0.83	3.21	40.12	0.83
	I am worried about, even a little weight change.	0.81			
	When I hear someone gained weight, I am also worried.	0.79			
	I have tried to lose weight by regulating food intake or fasting.	0.78			
Factor 2 Appearance-concern	I always try to enhance my appearance.	0.77	1.59	19.86	0.70
	I am concerned about how I look.	0.74			
	I often look at my appearance in the mirror.	0.73			
	If I do not like clothing or hairstyle in the morning, it bothers me all day.	0.64			

Table 5. Sociocultural influences of appearance on body image

Dependent variables (Body image)	Independent variables (Sociocultural influences on appearance)	β	t	F	R^2
Weight-concern	Parental influence	.24	6.61***	56.894***	.208
	Media influence	.32	8.42***		
	Peer influence	.38	.98		
Appearance-concern	Parental influence	.11	2.88**	31.498***	.127
	Media influence	.16	4.00***		
	Peer influence	.21	5.32***		
Total		.48	14.09***	198.469***	.234

** $p < .01$, *** $p < .001$

문화적 영향이 신체이미지를 설명한 총 변량은 23.4%, 체중관심과 외모관심을 설명한 변량은 각각 20.8%,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것이 외모향상추구행동(14.3%)보다는 신체이미지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차원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이 차원별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영향은 체중관심($\beta=.24$, $t=6.61$, $p<.001$)과 외모관심($\beta=.11$, $t=2.88$, $p<.01$)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미디어의 영향은 체중관심($\beta=.32$, $t=8.42$, $p<.001$)과 외모관심($\beta=.16$, $t=4.00$,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의 영향은 외모관심($\beta=.21$, $t=5.32$, $p<.001$)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디어의 영향이 체중관심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주시되며, 이는 TV

나 잡지에 등장하는 모델/연예인의 날씬한 외모가 여대생들로 하여금 체중에 신경을 쓰게 하고 체중증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함으로써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자극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TV 시청시간이 개인의 신체이미지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의 차이를 지각하게 하여 결국은 외모와 체중에 높은 관심을 갖게 한다고 밝힌 Lee(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외모관심에 미치는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변의 친구 혹은 친구집단과의 비교가 개인의 외모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Craig et al.(2007)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친구사이의 외모문화, 외모평가 등 외모와 관련된 압력을 느낀다고 밝힌 Jones and Crawford(2006)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친구의 영향이 체중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주시되며, 이는 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체중에 대한 관심과 체중증가에

대한 우려가 여대생의 공통적 특성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6.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가 여대생의 외모향상추구행동 즉, 얼굴관리, 의복선택, 체중/체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51.098$, $p<.001$),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을 설명한 총 변량은 35.1%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신체이미지가 체중/체형관리, 의복선택, 얼굴관리를 설명한 변량은 각각 27.8%, 26.5%, 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의 유의한 영향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차원별 신체이미지가 차원별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체중관심은 체중/체형관리($\beta=.49$, $t=13.95$, $p<.001$), 의복선택($\beta=.16$, $t=4.42$, $p<.001$), 얼굴관리($\beta=.17$, $t=4.54$, $p<.001$)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심은 의복선택($\beta=.44$, $t=12.45$, $p<.001$)과 얼굴관리($\beta=.31$, $t=8.06$, $p<.001$)에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심이 체중/체형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해석이 필요 없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신체이미지의 근본적인 초점이 체중과 체형에 맞추어져 있다고 한 Tiggemann and Lynch(2001)의 주장을 지지하며, 체중관심차원이 여대생들의 다이어트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Lim(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외모관심이 의복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 역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의복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예측된 결과이며, 이는 외모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여대생들이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밝힌 Kim et al.(200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외모관심이 많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을 추구한다고 밝힌 Kim(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외모관심이 체중/체형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주시되며, 이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의복선택과 얼굴관리보다 쉽지 않은 외모향상추구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유추되지만, 외모관심이 높은 여성일수록 메이크업과 헤어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한다고 밝힌 Seong and Choi(2011)의 연구결과와는 일맥상통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미디어의 영향만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과 친구의 영향을 포함한다는 것을 주시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부모, 미디어, 친구)과 신체이미지가 여대생들의 외모향상추구행동(얼굴관리, 의복선택, 체중/체형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먼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부모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 친구의 영향이라는 3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Table 6. Body image on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s

Dependent variables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s)	Independent variables (Body image)	β	t	F	R^2
Weight/figure management	Weight-concern	.49	13.95***	124.824***	.278
	Appearance-concern	.09	2.52		
Clothing selection	Weight-concern	.16	4.42***	117.078***	.265
	Appearance-concern	.44	12.45***		
Facial management	Weight-concern	.17	4.54***	61.002***	.158
	Appearance-concern	.31	8.06***		
Total		.59	18.74***	351.098***	.351

*** $p<.001$

전체적으로 외모향상추구행동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신체이미지는 체중관심과 외모관심이라는 2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p<.001$ 수준에서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여대생의 외모향상추구행동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요인들 중 부모 자신과 응답자의 외모에 대한 태도가 여대생의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디어나 친구로부터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우려하거나 비평하기보다는 자녀의 신체적 외모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커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미디어가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특히 외모관심 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했던 선행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하며, 미디어 매체들이 미용성형의 부작용이나 폭식증 혹은 거식증 같은 사회문제를 보도할 때 그것을 단순히 외모지상주의의 결과로 해석하고 피해자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기보다는 내면의 미가 외면적인 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례들을 보도함으로써 진정한 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간 개별적으로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요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그것들 각각이 여대생들의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는 것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이미지가 여대생들의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강도를 파악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외모 관련 사업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외모향상추구행동의 실태, 그들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외모를 중시하는 현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대생들이 외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부지역에서 편의 추출한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따르며, 또한 친구의 영향에 이성친구의 영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다른 지역의 여대생들을 포함시킨 연구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대상을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남성들까지로 확대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그들의 외모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고자 한다.

References

- Baron, R. A., & Byrne, D. (1977).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2nd ed.), London: Allyn and Bacon, Inc.
- Bittner, L. S. (1996). *The effect of appearance enhancement on first impression judgments of college professors' characterist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Utah.
- Botta, R. A. (1999). Television images and the adolescent girls body image disturbance. *Journal of Communication*, 49(2), 22-41.
- Cash, J. E. (1992). *Cash's textbook of neurology for physiotherapist*. Phil: J. B. Lippincott & Co.
-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J. K. Thompson (Ed.),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p. 125-130). New York: Pergamon Press.
- Cho, H. R., & Choi, J. M. (2007). Relationship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4), 825-835.
- Choi, J. S. (1996).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ies of Korean cosmetic industry to meet changing consumer nee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Chung, M. S., & Lee, K. S. (2007). The influence of Aesthetic surgery attitude, self-esteem and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7), 131-140.
- Craig, A. B., Martz, D. M., & Bazzini, D. G. (2007). Peer pressure to "fat talk": Does audience type influence how women portray their body image? *Eating Behaviors*, 8(2), 244-250.
- Fallon, A. E. (1990). Cultural in the mirror: Sociocultural determinants of body image. In T. F. Cash & T. Fruzzin-sky (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pp. 80-109). New York: Guilford Press.

- Fisher, S. (1986).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body image*, 1/1. Hillsdale, NJ: Earlbaum.
- Gergen, K. J. (1971). *The concept of self*. NK: Holt, Rinehart, and Winston.
- Golan, M., & Crow, S. (2004). Parents are key players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weight-related problems. *Nutrition Reviews*, 62(1), 39–50.
- Jeon, H. J. (2010).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body estee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Jones, D. C., & Crawford, J. K. (2006). The peer appearance culture during adolescence: Gender and body mass vari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2), 257–269.
- Jones, D. C., Vigfusdottir, T. H., & Lee, Y. (2004). Body image and the appearance culture among adolescent girls and boys: An examination of friend conversations, peer criticism, appearance magazines, and the internalization of appearance ideal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3), 323–399.
- Jung, Y. J. (1994).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lothing involvement and reference group influ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Kaiser, S. B. (1993). Linking the social psychology of dress to culture: A contextual perspective. *ITAA Special Publication*, 5, 39–47.
- Keery, H., van den Berg, P., & Thompson, J. K. (2004). An evaluation of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dissatisfaction and eating disturbance with adolescent girls. *Body Image*, 1(3), 237–251.
- Kim, H. K. (2005). *A study on the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according to homologous reference group of the adolescent consum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I. H. (2010). The effect of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and weight control of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9), 1442–1453.
- Kim, J. H., & Lennon, S. J. (2007). Mass media and self-esteem,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 tendenc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5(1), 3–23.
- Kim, J. S., Lee, M. S., Kim, E. J., & Lee, H. W. (1999). The effect of body image on control and appearance management and clothing behavior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2(1), 20–36.
- Kim, K. K., Lee, K. S., & Chung M. S. (2001). The effect of multiple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2), 358–365.
- Koh, A. R., & Lee, S. G. (2004). Formation models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s as related to pubertal physical growth.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89–203.
- Lee, M. S. (2000). *The effect of TV media on body images, clothing behaviors and star-entertainer imitation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Lee, M. S. (2008). The effects of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relating to appearance on adolescents'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6), 96–109.
- Lee, M. S., & Song, K. J. (2009). The effects of attitudinal body image and plastic surgery attitude on clothing behavior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8(2), 441–449.
- Lee, S. G., & Koh, A. R. (2006). A qualitative approach of appearance-enhancement 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 59–70.
-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3(2), 94–117.
- Lim, K. B. (2008). A study on attitudinal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body cathex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0(6), 882–889.
- Morrison, T. G., Kalin, R., & Morrison, M. A. (2004). Body-image evaluation and body-image investment among adolescents: A test of sociocultural and social comparison theories. *Adolescence*, 39(155), 572–592.
- Park, E. J., & Chung, M. S. (2010). The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Journal of Costume Culture*, 18(4), 717–730.
- Park, J. S. (2006). *Examining the perceived body importance model of eating behaviors: In a sample of young adults and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Paxton, S. J., Schutz, H. K., Wertheim, E. H., & Muir S. L. (1999). Friendship clique and peer influences on body image concerns, dietary restraint, extreme weight-loss behaviors, and binge eating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2), 255–266.
- Price, B. (1986). Keeping up appearance. *Nursing Times*, 83(40), 58–61.
- Ricciardelli, L. A., McCabe, M. P., Holt, K. E., & Finemore, J. (2003). A biopsychosocial model for understanding body

- image and body change strategies among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475–495.
- Rozin, P., & Fallon, A. (1988). Body image, attitude to weight, and misperceptions of figure preferences of the opposite sex: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in two gener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3), 342–345.
- Rudd, N. A., &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Schwartz, D. J., Phares, V., Tantleff-Dunn, S., & Thompson, J. K. (1999). Body imag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parental feedback regarding physical appea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5(3), 339–343.
- Seong, N. S., & Choi, S. K.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y image and total fashion image: Focused on clothing, make-up, and hai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7(2), 243–251.
- Song, K. J. (1999). *Effects of the body image and the self-esteem on the cloth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Song, K. J. (2009). The effects of perceptual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10), 1611–1621.
- Stice, E. (1994). Review of the evidence for a sociocultural model of bulimia nervosa and an exploration of the mechanism of a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7), 633–661.
- Stormer, S. M., & Thompson, J. K. (1996).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A test of maturational status, negative verbal commentary, social comparison, and sociocultural hypothes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2), 193–202.
- Stuhldreher, W., & Ryan, W.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distortion in body image perception in college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5(1), 8–13.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Tiggemann, M., & Lynch, J. E. (2001). Body Image across the life span in adult women: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7(2), 243–253.
- Wertheim, E. H., Martin, G., Prior, M., Sanson A., & Smart, D. (2002). Parent influences in the transmission of eating and weight related values and behaviors. *Eating Disorders*, 10(4), 321–334.
- Yamamiya, Y., Cash, T. F., Melnyk, S. E., & Posavac, H. D. (2005). Women's exposure to thin-and-beautiful media images: Body image effects of media-ideal internalization and impact-reduction interventions. *Body Image*, 2(1), 74–80.
- Yun, C. H., & Jin, K. N. (2006). The effect of media on taking make-up and hairdress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8(3), 336–342.